

보도설명자료 (’17. 5. 3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火電 8기 멈추는데…때 이른 폭염에 전력예비율 ‘뚝’
(’17. 5. 31, 동아일보)

1. 기사내용

- ☐ 산업부는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노후 석탄 8기의 가동을 6월 한달간 일시 정지(셧다운)하기로 함
 - 이에 따라 총 2,845MW의 공급이 감소하고, 여기에 6월 18일 영구 정지되는 고리 원전 1호기(587MW)를 합치면 전력생산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
 - 산업부 관계자는 “고리1호기 영구 정지에 폭염까지 겹치면 공급 예비력은 1만MW 안팎, 전력예비율은 13%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밝힘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산업부는 노후 석탄 8기 셧다운관련 同 보도와 같은 수급상황을 밝힌 바 없음
 - 6월 노후 석탄 가동중단과 고리1호기 영구 정지 등을 감안해 폭염 등에 의한 수급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김성열 과장 (044-203-5240)
임기홍 사무관 (044-203-5254)